

“신뢰와 품질로 이어온 30년 소형가전 외 길”



선학전기

SUN HAK ELECTRIC

www.sunhak.com

선학전기는 다년간 전기제품을 생산·판매한 경험과 꾸준한 품질관리의 노력으로 품질을 인정 받아 1989년에는 전기 이불류(전기요)의 한국산업 규격(KS)을 취득하였으며, 또한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 전기후라이팬류를 처음 수출하였다.

1991년에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가정용 조리기구(전기후라이팬, 전기냄비)의 한국산업 규격(KS)을 2001년에는 ISO 9001를 획득하였다. 이처럼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품질관리로 꾸준하게 고객의 사랑을 받아 오고 있는 선학전기의 김춘식 대표를 찾아가 인터뷰해 보았다.



김춘식 대표

◎ 청렴한 기업인이라는 자부심

선학전기 김춘식대표는 1978년부터 지난 30여년간 거래처와 고객과의 신용을 최우선 경영가치로 여기고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김대표는 “지금까지 회사를 꾸려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은 과욕을 부리지 않고 건실하게 회사를 꾸려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마음가짐이 “경기 흐름을 타지 않고 부침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고 말했다.

소형가전제품 및 가정용주방기구 전문 제조업체인 선학전기(www.sunhak.com)는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2010년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 선학전기 신사옥 모습(부천시 원미구 소재)

◎ 업계 최초 산업 표준화 규격(KS인증) 취득

1978년 서울 성수동에서 전기밥솥을 생산하면서 출범한 선학전기는 1989년 전기 이불류로는 업계 최초의 'KS마크' 획득과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 전기프라이팬류를 처음 수출하였으며 성장 기반을 닦았다.

다년간 가정용 전기제품만을 고집하는 뚝심 있는 장인정신으로 91년 국내 최초로 전기프라이팬과 전기냄비 등 가정용조리기구 KS마크를 획득하여 '선학' 이란 브랜드를 강하게 각인 시키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섰다. 선학전기의 주력 제품인 전기프라이팬은 내수시장은 물론 92년부터 지금 까지 중국 시장의 개척과 러시아, 미국, 베트남 등 해외시장에 꾸준히 수출하는 효자품목이다. 이 같은 내수와 수출의 성장세에 힘입어 93년 부천시 원미구로 공장을 확장 이전한 선학전기는 이후 선풍기, 전기히터, 전기매트, 믹서기 등 새로운 품목을 연이어 출시하였다.

◎ 실익 보다는 제품의 품질과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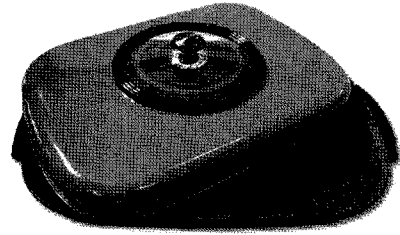
김춘식 대표는 "하자가 발생하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제품을 전량 수거하는 등 이익보다는 품질을 우선한 것이 성장 비결" 이라고 설명했다.

선학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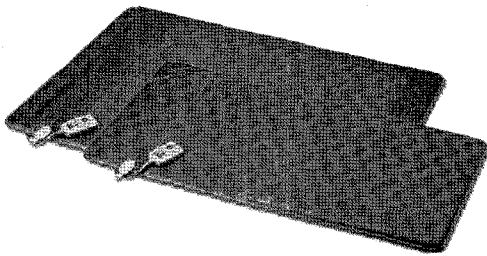
김 대표의 설명처럼 선학전기는 사소한 결함이 발생 하여도 제품을 전량 '리콜(RECALL)' 한다. 해당 부품을 단순히 점검, 수리하고 교환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라인까지 철저하게 검사한 후 문제점을 해결해 다시 제품을 생산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1도 2001년도에 일찌감치 획득해 고객 신뢰도를 높였다. 품질에 대한 남다른 간간함과 철저함은 거래처와의 결제 방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거래처와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결제하고, IMF외환위기 등 어려운 시기에도 단 한 차례 결제를 연기한 적이 없을 정도로 관련 업체와의 신뢰를 중요하게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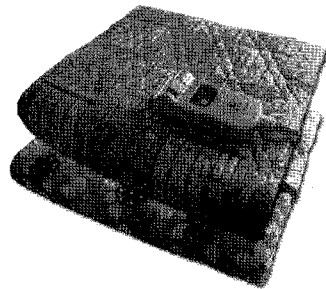
김춘식 대표는 '선학 = 믿음' 이란 신뢰가 두텁게 쌓여 판로 개척 등 유통망 확보에도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소비자에게도 '실속 있고 믿을 수 있는 제품'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니 입소문만으로 인지도가 제고됐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 전기 프라이팬



▲ 전기 매트



▲ 분리형 물세탁 전기요

◎ 나눔경영 철학

김 대표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 되고자 직원들의 해외연수 및 각종 사의 교육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인력의 고급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다.

눈앞의 실익보다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한 향후 몇 년 뒤의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직원들의 질적 향상과 자랑스런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직원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또한 그 노력은 사내에 국한 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매년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지역사회 개발과 도움이 필요한 지역단체 및 종교 단체에 이익을 환원하는 활동 등을 통해 공로패와 감사패의 수상 경력이 셀수 없이 많으며, 이 모든 것

이타기업에 표상이 되고 있다.

그의 리더쉽은 사내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 전기장판 협회 회장과 전열기구 협회 회장 등을 수년간 역임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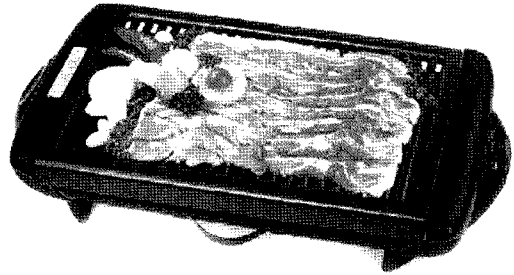
◎ 남보다 앞선 안목

남보다 앞선 안목도 선학전기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선학전기는 웰빙 트렌드가 지금처럼 확고한 소비 패턴으로 인식되기 이전부터 친환경 개념을 도입한 제품 개발에 나섰다. 가정에서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건강에 유익한 소재인 황토, 금·은나노 등의 전기요와 세라믹 원적외선히터 등을 타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출시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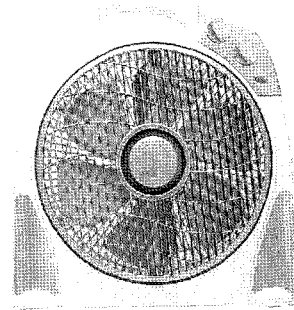
최근에는 중장기 성장 비전을 '전열기기 종합메이커'로 선포한 선학전기는 향후 몇 년 간 전열기기 제품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공장 및 사옥을 신설하였으며, 전열기기 트렌드에 대한 연구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김 대표는 "공장 확장 이전과 함께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가정용 전열기기는 물론 산업용 전열기기 등 다양한 품목의 제품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해외 거래처 외에 새로운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표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선학전기의 더 큰 활약과 발전을 기대해도 좋다"며 자신 있게 포부를 밝혔다.



▲ 다용도 그릴팬



▲ 선풍기

mor Q ning
모닝큐